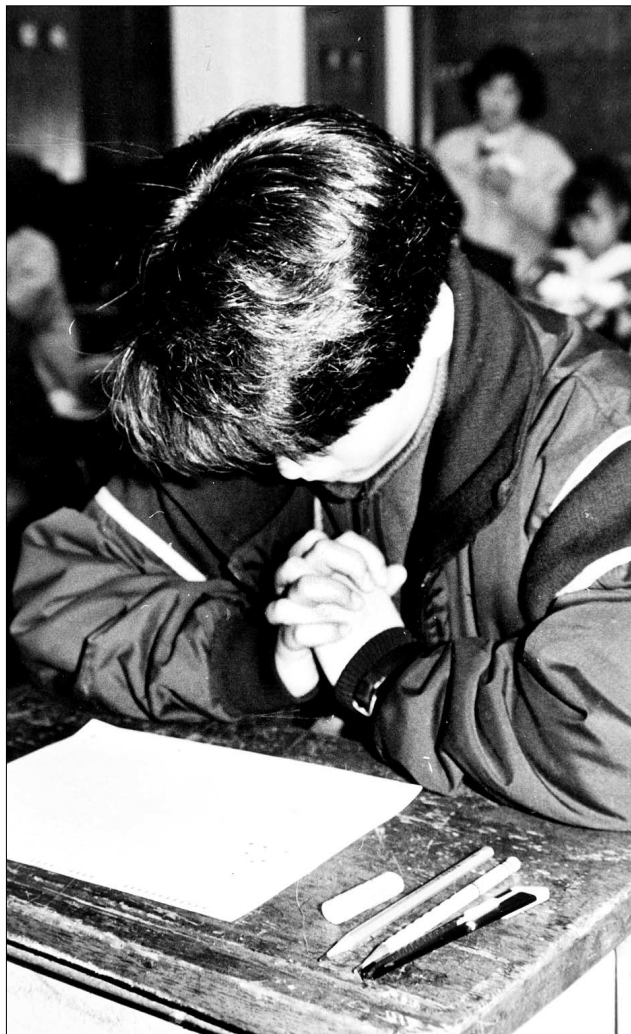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학력지상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전인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진은 수능시험 현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바닥 짚은 '인성교육' '전인교육'

상처투성이 교육현장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26% 이상이 학교폭력이나 '왕따' 피해를 경험했고(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년),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조차 80%에 달하는 학생이 카빙을 경험한 적(잡링크, 2004)이 있다고 한다. 입시철이면 시험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매년 초·중·고생의 1% 정도가 해외유학을 떠나는 '교육 대탈출' 현상도 이제 그리 새롭지 않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과과정은 대학학적을 위한 입시 위주로 짜여지고, 개인의 적성과 개성은 무시되기 일쑤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성적'이라는 하나의 가치로만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암기'와 '주입' 위주의 교육은 자연히 인성(人性)교육의 부재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기보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경쟁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현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교육의 원래 목적은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새로운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본질적인' 의미의 교육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일고 있다. 여러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

링(Home-Schooling), 학생들이 또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며 공부하는 대안학교 등이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대안'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경쟁과 이기주의를 벗어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직접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며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실천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개인이 지닌 본유의 심성과 특성을 중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일선 학교에서도 전인교육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논산 대진고는 현재 영화감상, 식물탐사, 성(性)교육, 명상의 시간 등 30여개의 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매주 월요일 직접 자신의 학습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 진안공고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명상과 기체조 등 심신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초등학교는 매주 토요일 전일제로 운영되는 토요 체험학습을 통해 시장 보기, 옷 만들기, 집 짓기 등의 생활체험을 비롯해 자연체험, 예술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들의 특기와 관심사항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재활활동시간(CA)'에 인성교육을 시도하는 학교도 있다. 경기 성남 매송중과 이매중은 요가 계발활동반을 운영 중이다. 학생들에게는 명상과 기체조 등을 통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삶에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다.

입시전쟁을 통과한 학생들이 '취업'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대와 한신대, 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은 템플스테이를 정식 학점 인정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삶과 배움의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에 해답이

부처님의 교육방식을 대표하는 말로 '대기설법(對機說法)'을 들 수 있다. 진리를 구하려는 사람의 근기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가르침을 펼친 부처님의 교육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육 현실은 어떨까? 14살 수진이의 예를 살펴보자.

수진이는 석 달 전부터 서울 마포에 있는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에 다닌다. 발음이 늦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진이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또래 친구를 갖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수진이의 부모는 치료와 보육문제도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러던 차에 만난 공동육아 모임은 수

진이네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해줬다.

계층·지역·성(性)·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교육,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수진이는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환영한다"고 확신하게 됐으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

수진이의 예에서도 보듯이 조금이라도 남과 '다른' 아이들이 현재의 제도교육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교육만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타인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이념으로 하는 이유학교(경기 성남)나 '마음공부를 통한 인성교육, 친환경의 생태체험교육'을 목표로 하는 현산중학교(경기 용인) 등은 물론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품무학교(충남 홍성)도 이웃·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키워내려 애쓰고 있다.

나와 타인, 사람과 자연의 공생과 생명의

▶▶▶ 33면으로 계속

종교계 '대안교육' 현황

12월 24일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대안학교를 공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가겠다"고 선언하며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체계와 절차, 정책 등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시도되는 있는 대안교육의 활성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불교계에서 전인교육이라 할 만한 교육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단 한곳.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불

교계에서는 이 같은 교육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지난해 '크리스찬 홈스쿨링 협회'를 창립했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2006년 개교를 목표로 탈북자를 위한 대안학교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건설부터 매입도 마친 상태다. 원불교 중앙총부 이

하는 것이 종교의 대(對)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상사 작은학교 이경태 대표교사는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살리고, 공교육의 모자란 부분을 채움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 하면서도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며 "불교계는 사찰이라는 전지연적 환경과 교리의 사상적 배경을 갖추고 있어 여건은 충분하 마련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순·여수령 기자

불교계 실상사 작은학교 유일... "여건은 충분"

교계는 훌륭한 '대안적 사상체계'를 갖고 있지만, 아직 '꽤' 많은 구슬서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미 개신교와 가톨릭, 원불

대안학교만도 7곳을 운영하는 등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원불교의 경우 6곳(정부인가)의 대안학교를

성일 교무는 "대안학교 설립의 목적은 포교나 교화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데 있다"며 "전인교육을 실천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5년 2월 9일 (4박 5일 투어) ● 요금: 5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개봉부 관우의 관립 등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금 포함 비자수수료 및 가이드 팁 별도

● 주요명소 : 달마대사가 설립한 중국최초 불교사찰 중국 3대석굴 판관 포청천의 삼국지 관우의 묘지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개봉부 탐림

● 비자 신청 서류
여권 카피 1부 팩스 송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일 정 표 ◆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2월 9일	인천 정주	전세기 CZ8090	22/50 23/50	전세기로 서울 출발 / 정주 도착 후 호텔유식		
				호텔: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0일	정주 동봉 낙양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동봉,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 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 무술 시범단 무술시범 관람, 현지 중식 후 중국 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1일	낙양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린 관광,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판관 관광, 개봉으로 향할,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개봉 옥상 호텔 (4성급) 또는 동급		
2월 12일	정주 개봉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명대, 청대에 남방 귀족상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산성관, 포청천의 판관 포공사 관광, 현지 중식 후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천탑공원 관광, 정주로 향할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3일	정주 인천	전세기 CZ8089	19/00 21/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향하 유림구 관광, 현지 중식 후 대하촌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조식 중식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불포함사항 : 기사와 가이드 팁, 비자수수료 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임장료,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전체비용 포함) 전세기 인 관계로 출,도착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신청마감 : 2005년 1월 24일 ◆ 계약금 : 150,000원 ◆ 비자수수료 : 18,000원

◆ 연락처 : (주)격린여행사 TEL 02)332-4522, 8922 FAX 02)337-3231, 3858

성을 길러주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모범이 되는 것을 전달하고 학습한다'는 본래 뜻과는 너무도 멀어져 버린 우리의 교육 현실, 일생을 어려움에 빠진 중생을 교육하는데 몸 바친 '인천(人天)의 스승' 부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새틀 짜기 온 국민 마음 모으자

‘성적·경쟁’보다 ‘인간·생명’ 가르쳐야... 대안교육 시급

32면에서 계속

준엄성을 지향하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아이들에게 그려주려는 세상은 부처님이 일러준 연기론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세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

중립학교의 작지만 큰 노력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중립학교는 현재 28곳(초·중·고).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과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중립학교라 해도 전인교육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여력은 없다. 재량활동시간(CA)을 빌어 풍물놀이, 한자학습, 역사탐험, 생태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만족해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교범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불교교육연합회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인성과 전통 문화 교육을 위한 불교시정각 교재-중고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집>과 10장의 CD를 펴냈다. 제7차 교육과정 들어 강조되고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문화심성 교육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교적 가르



마서 보광사에서 들살이(캠프)를 마치고 주지스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성미산학교 어린이들. 성미산학교는 서울시내에 문을 연 첫 대안학교다.

침을 반영해 마련한 교재다.

또 8월에는 방학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동영상 인성교육 자료 '날마다 한 생각'을 제작하기도 했다. 부지·실천·포용력 등을 주제로 한 조화나 종로 시간에 5분간 방송함으로써 일종의 명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립학교들은 참선이나 명상과 같은 효과적 인성교육법을 직접 수업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법회 시간에서 이뤄지는 참선이 거의 전부다. 대안학교가 참선이나 명상, 템플스테이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국교범사단 김형중(동대부고)단장은 "오늘의 CA 시간은 예전과 달리 요식행위가 아니라서 활용도가 높다. 학생이 원하고

교사가 열성적으로 지도할 수만 있다면 CA시간에 참선교육을 시행해볼지 하다"고 긍정하면서도 "소수의 학생으로 운용되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대안학교와 달리 입시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일반학교 현실에서 인성교육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변화야

부처님은 <중요경>에서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수행하고 해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원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뼈들어진 교육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의 두 주체인 교사와 부모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뻘뻘한 교과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심성

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쉽지 않다.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주지역 초중등 교사들의 모임인 '행복한 학교 만들기 모임'이나 명상교육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교사들의 모임인 '밝은세상 교사들'(cafe.daum.net/bwteacher) 회원들은 학교 계발활동 시간에 마음따꾸반, 명상수련반 등의 이름으로 계발활동반을 개설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광주 정광고 이도배 교범사는 교내에 다도반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도교육을 통한 정서함양을 돕고 있다.

이 교범사는 "차 한 잔 마시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학생들이 정서 순화는 물론 겸양과 예의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금정중 이석인 교범사는 최근 '불교적 심성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처님아 지도 방안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부처님아를 화랑도 수련사상을 응용,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직 우리의 학부모들은 '새로운 교육방식'을 예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 아이가 남과 다른 길을 걷거나 경쟁에 지는 것은 곧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아야 할 시간에 봉사활동을 가거나 명상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뒤처지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다. 자녀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불사하고, 조기유학을 위해서라면 '가짜'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과외와 입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주입'과 '성적향상'이 아닌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공명체 의식과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임을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불국토(佛國土)가 아닐까?

여수경 · 박익순 기자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 '신도교육'도 내실 채우기 시급

바른 삶 가르치기 아직은...

제도 갖춰졌지만 현실 못 따라가



매년 수많은 불자들이 신도기본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인 실행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조계사에서 열린 신도 교육현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 삶'을 사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신도교육이다. 공교육과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신도교육은 불교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가정교육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불교의 신도교육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에 영향을 미칠만한 실천력을 이끌어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아직도 점을 보거나 입시기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을 찾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일부 사찰에서는 신도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기복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처님의 생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자가 부지기수다.

조계종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신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과정을 3단계로 심화하는 신도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하는 사찰은 310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신도교육 기관이 늘어났다고 해서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행하는 불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찰을 드나드는 신도 가운데 신도교육을 받은 불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례로 조계종에서는 불교신자 수가 전국적으로 약 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올해 포교원이 집계한 신도기본교육 이수자는 겨우 8천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B사찰 교무국장은 "불자들이 스스로가 신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그렇다고 사찰에 출입하는 불자 모두를 강제적으로 신도로 등록시키고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신도교육을 받은 불자가 하더라도 이것이 곧 '참된 불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자들은 6개월에 이르는 기본교육기간을 마치기도 벅차게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후 이를 자신의 실생활과 연결시켜 생각하지도 못한 다. 조계종 포교원이 2003년 신도기본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받은 불자들의 봉사활동 및 신생활 참여는 10점 만점에 5.9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소재 A사찰 교무국 직원은 "교육을 받은 후 사찰에 등록하는 신도가 전체 교육 이수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 이들을 봉사나 실질적인 사회활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가정교육의 기본이 되는 불자교육이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불자들을 정법의 길로 이끌기는 요원해 보인다. 신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회화하는 불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듯, 불교의 미래 역시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은비 기자

배관난방이 아닌 면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중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원제품.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역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냈습니다.

구분	심야전력(축열식)	전기난방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격(원)	31,240(kwh)	71,500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0(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	7(ℓ)	12(kg)	43.2(kwh)
난방비(평당)	5,998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38원
단가저수(%)	194	386	210	35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6,000원	110,500원	114,000원	30,3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시료명	음이온(on/cc)	발급번호	방사율	방사에너지	발급번호
발열필름	158	kflm-236	90.3%	3.64 × 10 ⁷	kfl-403

검증 인증서 | 한국원적외선용융평가연구원 시험결과

(주)한국전자난방 본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6-5번지 고려빌딩 4층 • 설치 및 전국문의: 080-017-0100, 지역문의: 043)221-6006